

FDI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한·중 비교분석*

김성순**, 주학총***

요 약

본 논문은 외국인직접투자와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과 중국의 1980-2012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서 FDI 유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그 실증분석 결과를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고 나온 추정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는 국내투자, 무역규모 및 정부지출이 클수록 경제가 더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부소비지출, 국내투자 및 무역규모 셋 변수 중에서 국내투자는 경제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정책의 목표를 두는 것이 장기적인 성장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중국은 경제개혁개방 이후 매년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양적성장을 가능하게 한 요인은 해외직접투자 유입이 일인당 실질GDP성장률에 가장 크게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성장요인이 다양하게 평가되고 있는데, 그러므로 중국은 해외직접투자 유입을 증가하는데 정책의 목표를 두는 것이 장기적인 성장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결론은 한국은 해외직접투자 유입이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중국은 해외직접투자 유입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핵심주제어: 해외직접투자, 경제성장, 한국, 중국, 회귀모형
JEL 분류번호: F2, O5

* 본 논문은 주학총(2014)의 석사논문을 기초로 하여 재구성한 것임.

** 제1저자,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E-mail: sskim@dankook.ac.kr,

*** 교신저자, 단국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석사졸업, E-mail: xczhu@daum.net.

I. 서론

최근 세계화가 세계 경제 질서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로의 외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FDI)는 특히 고용 창출과 공장설비구축과 기술이전, 생산성향성 등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자국의 경제성장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 경제는 최근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보이고 있고, 중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한국의 70년대 성장 전략을 반면교사로 삼을 만큼 영향을 주었고, 중국의 고도 경제성장이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등 양국의 경제 상황과 전략이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을 돌아보고, 미래의 거시 경제 상황을 예측할 때, 양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비교는 필수 불가결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대중국 FDI의 경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내 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노동집약적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를 계기로 한국은 대중국 FDI 방식을 통하여 노동 집약적 산업들이 중국으로 이전하였고, 중국의 노동집약적 산업이 발전되며 중국내 생산기술 수준이 향상되었다. 또한 한중 양국 간 무역이 발전함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FDI 산업이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환되어 한국의 FDI는 중국에 선진생산기술과 관리경험을 제공하게 되었다.¹⁾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로 대외무역 의존도가 80%를 초과한다. 그 중 대중무역 의존도는 25%가 초과하여 양국 간의 경제무역 관계는 매우 긴밀하다 할 수 있다. 한국 지식경제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양국 무역 총액은 2139억 2천만 위안으로 동기 대비 13.5% 증가하였고 한국 한해 무역액의 19.77%를 차지하여 양국 정부가 목표한 무역액 2000억 달러를 1년 앞당겨 달성하였다. 그 중 한국의 대중수출은 1298억 1천만 달러로 동기 대비 24.2% 증가하여 한국 수출총액의 24.2%를 차지하였다. 한국의 대중수입은 841억 1천만 달러로 동기 대비 16.6% 증가해 한국 수입총액의 16.6%를 차지하였다. 한국의 대중무역 흑자는 457억 달러로 동기 대비 1% 증가하였다. 중국은 한국의 1위 무역파트너이자 수출대상국 및 수입대상국이다. 중국 경제성장율이 1%p 감소하게 되면 한국의 경제성장율은 0.3~0.5%p가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 변화는 반드시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선진국으로서의 한국과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중국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개방도의 중요한 요소인 외국직접투자가 경제성장에 주는 효과를 전반적으로 검증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FDI가 양국 간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양국 간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그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1장의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본 주제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분석한 후, 제3장에서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 모형을 설정하고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 자료 출처를 제시한 후 기초통계량,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을 검토하고 상관분석, 회귀분석 등 적절한 추정방법을 통해 분석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제5장은 결론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장진자·강다연·전영서(2014), “한국의 대중국 FDI와 수출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제조업 중심으로-”.

II. 선행 연구

개발도상국이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FDI는 외국자본을 이용하는데 있어 가장 선호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며 다국적기업들의 투자방식이기도 하다. FDI의 유입이 국가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60년대 부터라 할 수 있다. MacDougall(1960)은 후생측면에서 FDI의 확산효과를 가장 먼저 체계화 하였으며 MacDougall(1960)을 비롯하여 몇몇 학자들이 FDI가 최적관세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형태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후 확산효과를 중심으로 FDI의 효과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것은 FDI의 유입과 확산효과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 효과는 유입국의 경제적 수용능력 즉 인적자본의 형성정도와 기술수준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FDI의 유입으로 노동시장의 경쟁과 교육에 의한 인적자본의 형성이 FDI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FDI는 유입국의 자본형성을 통하여 투자를 촉진시키며, 수출증대를 통하여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역할도 하며, 유입국의 산업을 활성화시켜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이다.

이성수(2002)는 1990-2000년의 98개국 시계열자료를 기준으로 생산함수모형을 이용하여 OLS 분석을 한 결과 FDI 유입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백렬(2004)은 1982-2002년간의 중국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FDI가 경제성장, 수출 및 수입에 대한 영향 연구에서 OLS 분석한 바, FDI가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대체로 국내투자증대, 수출 및 수입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김미아(2006)는 1994-2004년간의 패널자료로 유럽제국의 FDI와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수출주도적인 개도국의 경우 FDI의 유입이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많은 연구들이 FDI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결과와 반대로 FDI의 유입은 국내저축을 하락시키고, 그로 인한 국내자본형성을 위축시킴으로서 대외의존도를 강화시키는 등 산업구조 고도화추진을 방해하여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불리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었다(최백렬2004). 김흥기(2004)는 1980-1998년 28개 개도국의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FDI의 유입과 경제성장간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혔다.

실제로 중국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도 명확하게 일치된 견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실질 외국인 직접투자와 중국의 GDP총액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고용유발과 무역확대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기여도는 국내투자보다 크게 나타나며 외자유입으로 인한 기술진보까지 감안하면 그 기여도는 더 크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중국으로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중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하나 국내투자가 여전히 중국경제발전의 주요 원동력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연구, 또는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와 경제성장 사이에 장기적으로 안정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중국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각 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 의하면 외국인직접투자가 중국의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나 그 영향의 정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경우 그 영향이 아주 크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花俊, 顧朝林, 庄林

德(2001)은 1985-1997년 사이의 수치를 사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Granger 인과관계 검증을 실시한 결과 동부연해지역의 광둥(廣東)성의 경우만 외국인직접투자와 경제성장 사이의 인과관계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을 뿐 그 이외의 기타 지역들은 인과관계가 아주 미미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鐘昌標(2000)는 지역별 단순회귀분석을 통하여 외국인직접투자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나 그 영향의 정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魏后凱(2002)도 1985-1999년 사이의 시계열 수치와 횡단면 수치들을 이용하여 외국인투자가 중국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국인직접투자가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결론을 얻어냈다. 그는 이 연구에서 처음으로 동부 연해지역과 낙후된 서부지역 사이에 존재하는 GDP 성장을 격차의 상당부분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의 차이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분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연구들이 자본으로서의 외국인직접투자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분석에 치중하고 있으며 외국인직접투자가 중국 각 성이나 시의 기술진보에 미치는 영향은 다루지 않고 있다.²⁾

이설(2011)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연구는 지식자본모형(Knowledge Capital Model)을 이용하여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드물다고 보고, 지식자본모형을 이용하여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중국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지식자본모형에서 주장하는 수직적 동기가 발견되지 않았기에 따라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다시 설정하여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각 변수의 추정 결과, GDP합계, 공통국경, 공통언어, 천연자원, 양자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은 해외직접투자와 양(+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GDP차이의 제곱, 거리, 부속 국가, 내륙 국가, 양자세금협정은 해외직접투자와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윤(2011)은 “해외직접 투자와 경제성장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카자흐스탄 사례연구”에서 카자흐스탄의 해외직접투자와 경제성장에 관한 연관관계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먼저 카자흐스탄의 독립이후로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조사하고 그들의 영향정도를 파악하였으며, 일인당 GDP에 대한 일인당 해외직접투자의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2009년 사이의 자료를 World Bank Database에서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회귀분석, 시계열분석 및 Granger Causality Test를 주로 사용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GDP 와 Economic Freedom Index로 나타났으며, 경제성장 또한 해외직접 투자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해외직접투자는 GDP 및 Economic Freedom Index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일인당 GDP에 대한 일인당 해외직접투자의 영향은 일인당 해외직접투자가 1달러 증가시 일인당 GDP 30.4달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조정환(2011)은 “해외 자본 유입과 GDP 간 인과관계 분석: 인도를 중심으로”에서 1991년 인도의 경제개방 이후 자본 유입과 GDP 간의 인과관계를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세 가지 형태의 자본 유입-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포트폴리오 투자(Portfolio Investment), 해외 근로자 송금(Workers Remittances)-과 GDP의 분석결과는 세 가지 형태의 자본은 GDP와 장기 균형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한편에 단기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와 인도의 GDP는 양방향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포트폴리오 투자의 경우 인도의 GDP를 견인하는 일방향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해외

2) 남설봉·심승진(2007). “외국인직접투자가 중국 각 성/시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에 관한”.

근로자 송금은 인도의 GDP와 어떠한 인과관계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즉, 인도의 경우 자본 유입의 결정 요소 중 하나는 증가하는 인도의 시장 규모임이 분명하나, 자본 유입 자체는 장기적으로 인도의 GDP를 견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본 유입이 생산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인도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주로 해외 자본 유입과 GDP 간 인과관계 분석과 해외직접투자(FDI) - 경제성장의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한국과 중국 경제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며, 중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한국의 70년대 성장 전략을 반면교사로 삼을 만큼 영향을 주었으며, 각자의 경제 상황과 전략이 상호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FDI 유입이 한국과 중국의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선행연구와 달리 양국의 FDI 유입 효과에 대한 특징과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양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III. 한국과 중국의 FDI 유입 현황과 추이

1. 경제개방 이후 해외 기업들의 중국내 진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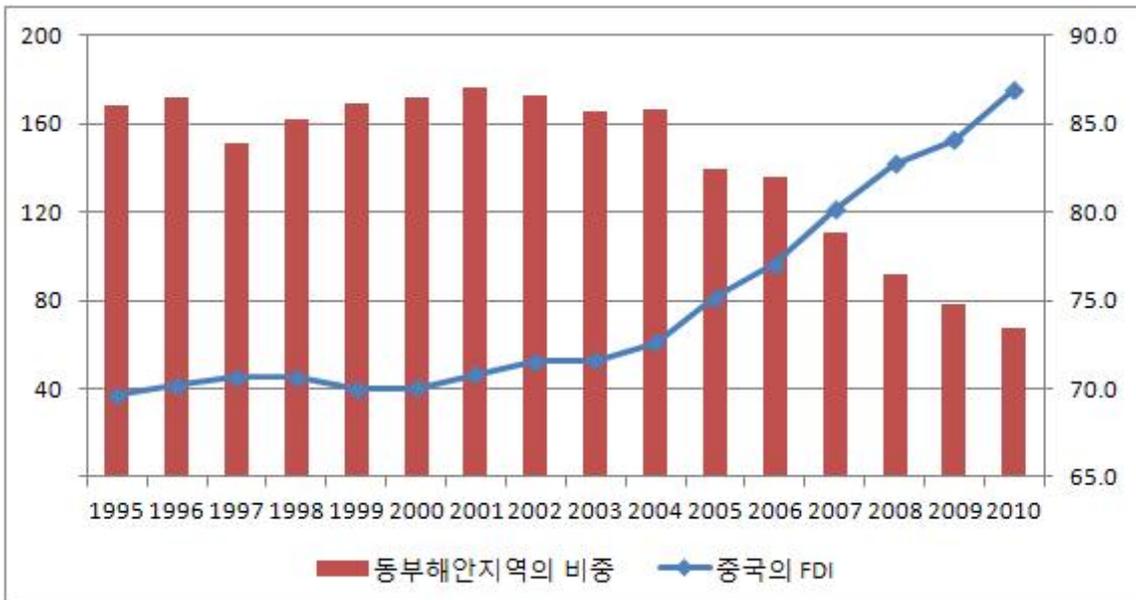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후 경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부문에서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의 중국이 있기까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경제 분야라 할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세계 경제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성장 동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중국경제의 양적 성장을 뒷받침한 요인은 다양하다. 그중에서 해외자본의 유입과 중국내 자본형성의 증대는 오늘의 중국경제를 있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의 경제성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동기간 외국인직접투자와 자본형성도 동시에 증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경제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수출은 개혁개방 초기연도인 1978년에는 97.5억 달러이었으나 2012년에는 20,4871.9억 달러로 증대되어 1978년 대비 약 210배 증가하였으며 동기간 연평균성장률은 16.1%로 높은 성장추세를 보여 왔다. 또한 수출증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외자기준으로 1983년 19.8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1,132.9억 달러로 증대되어 57.2배 증가하였고, 연평균성장률은 14.4%를 보여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왔다. 한편 소득증대를 통한 국내자본의 형성이나 FDI를 통한 해외자본의 유입으로 총자본 역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자본형성의 경우 1983년 1,963.6억 위안에서 2012년에는 204,110.5억 위안으로 증대되었으며 실질가치로 평가된 해외자본의 경우도 동기간 동안 4.9억 달러에서 1,051.8억 달러로 증대되어 연평균 각각 17.3%, 19.5%씩 성장하였다. 이 같은 경제 규모의 증대는 경제개혁개방과 더불어 각종 정부정책이 도입되었고 해외자본이 꾸준히 증대된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제지표의 성장에 힘입어 1978년 3,624억 위안(경상가격기준)에 머물렀던 중국의 총 GDP는 2012년에 51조 8,942억 위안으로 증대되어 연평균 약 16%의 성장을 달성하면서 규모 면에서 미국 다음의 경제규모를 갖는 국가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성장은 FDI 자본과 GDP증대간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자본의 유입은 성장을 촉진시

키는 자본형성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는 GDP를 증대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 성장 이론에 의하면 국제무역과 자본유입을 통하여 기술과 지식이 전파되어 이것이 경제성장을 촉진 시키고 경제성장은 다시 이들 요인들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이론으로 이들 변수 간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가능하게 한다.³⁾

다국적기업이 중국에서 투자를 공고히 하게 된 요인은 우선 기존의 수출의존형에서 내수 확대형으로 중국정부의 거시경제정책 전환으로 인한 중국 전역이 세계 최대 시장이 된 배경을 들 수 있다. 물론 그동안 대외경제의 악화로 중국 경제의 둔화, 외국 기업에 대한 혜택 축소, 인건비 상승 등으로 중국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사업하기가 점점 힘들어 중국을 떠나는 경우는 있으나, 새로 진출하거나 투자를 더욱 확대하는 기업들도 생겼다. 이는 중국시장의 현실적인 어려움보다는 향후 성장 잠재력에 더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일 것이다.⁴⁾

[그림 1] 1995-2010년 외국기업의 대중국 투자현황



주: 중국의 FDI는 왼쪽, 동부해안지역의 비중은 오른쪽임.

자료: CEIC Data Manager(<http://www.ceicdata.com/CDM.html>).

[그림 1]에 따르면 동부해안지역의 경우 북경, 광둥, 강소, 요녕, 상해, 천진을 중심으로 FDI가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북경(Beijing)과 상해(Shanghai)를 중심으로 FDI가 집중되어 있다. 최근에는 상해와 천진(Tianjin)을 중심으로 FDI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요녕의 대련(Dalian) 시로의 FDI 역시 크게 증가하여 북경보다 많은 FDI를 유치하고 있다. 이와 달리 광둥성과 강소성에 위치한 시(city)로의 FDI는 최근 들어 유치실적이 썩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중국 전체 FDI에서 동부해안지역의 상위 5개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전체 비중)은 소폭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서부내륙지역의 상위 5개 지역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중국의 FDI 증가가 동부보다는 서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다.

3) 김종섭(2014), “중국의 FDI(Inward), 자본과 경제성장간의 관계 및 영향연구”.

4) LG경제연구원, 「2011~2013년 중국시장 1등 브랜드의 판도 변화」, 2014.

2. 해외 기업들의 한국 내 진출 상황

한국의 외국인투자(FDI)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 대외개방과 FDI 지원제도를 바탕으로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하여 한국경제의 한 축으로 정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외국인의 국내기업 M&A전면 허용('98), 외국환 거래자유화('98), 외국인투자촉진법('98) 및 경제자유구역법('03) 제정 등에 힘입어 2007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16.4천개)이 전 산업 대출의 9.7%, 고용의 5.1%, 수출의 15.6%, 조세 수입의 10.7%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경제자유기획단,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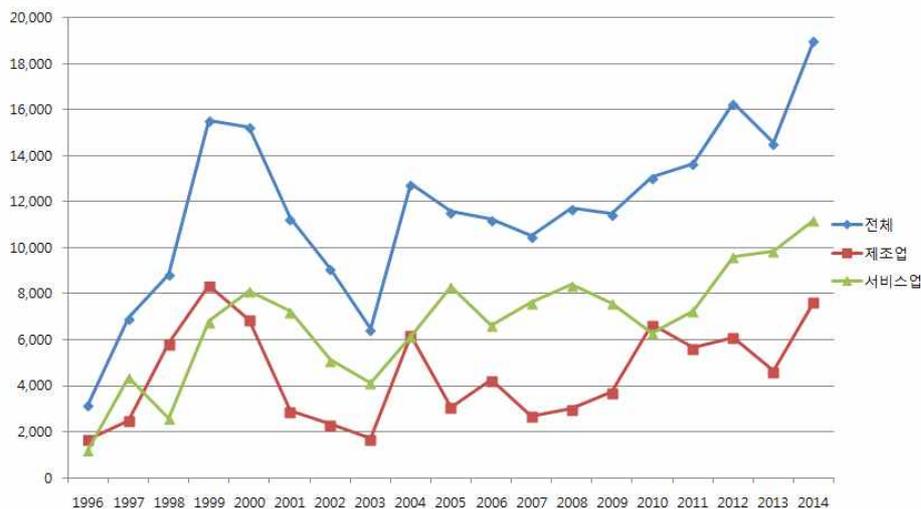
그러나, 심화되는 국가 간 FDI유치 경쟁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FDI 유치활동도 국가산업 발전전략과 연계 강화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전 세계 FDI는 지난 5년간 크게 증가한(04년 0.7조불에서 08년 1.6조불) 반면, 한국은 다소 경제 상태(04년 128억불에서 08년 117억불)에 있는 실정이다(OECD, 2010). 지난'05-'07년까지는 3년 연속 감소하였으나 08년은 신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 등으로 증가세로 반전되고 있어, 이러한 상승세를 적극 살려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유치시스템도 전략산업 분야로 FDI 유치에 집중하는 경쟁국과 달리 외자확보에 중점을 두는 개발도상국형으로는 성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경제자유기획단, 2010)

[표 1]과 [그림 2]는 최근 외국기업의 대한국 투자에 대한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의 외국인투자 유치규모는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증가 추이를 보이다가 2000-2003년 기간 조정기를 거친 후 최근 다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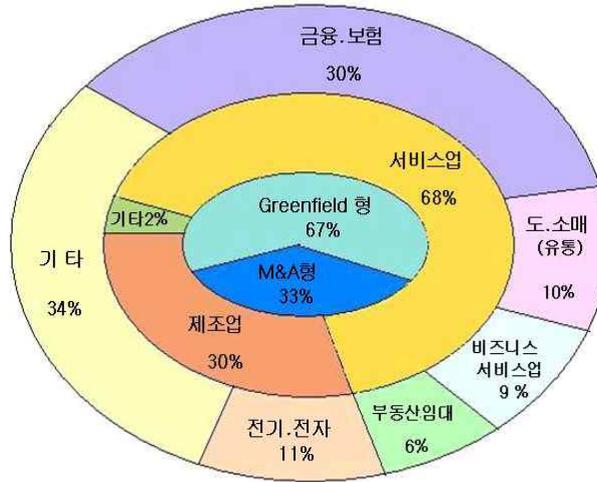
[표 1] 및 [그림 2] 외국기업의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추이(단위: 천 달러)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3,204	6,971	8,858	15,545	15,256	11,286	9,093	6,469	12,786	11,563	11,233	10,509	11,712	11,484	13,071	13,673	16,286	14,548	19,003
제조업	1,673	2,508	5,835	8,356	6,877	2,911	2,337	1,698	6,211	3,075	4,243	2,688	3,007	3,725	6,657	5,657	6,097	4,648	7,649
서비스업	1,222	4,362	2,591	6,796	8,121	7,230	5,122	4,132	6,141	8,301	6,622	7,612	8,388	7,595	6,302	7,269	9,602	9,848	11,188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승인통계 11520)」

[그림 3] 업종별 투자유치 현황



한국 정부는 최근 글로벌 경기회복 이후에 대비하고, 한미 FTA 등 기회요인을 살려 고부가가치 FDI 유치에 가능한 외국인투자유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가 중심의 규제 개혁, 경제자유구역(FEZ) 고도화 등 외국인투자환경의 지속적 개선을 통한 투자매력도 적극 제고하려고 하고 있다.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1998년부터 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개방 하는 등 경제 전 분야에 걸친 자유화를 추진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외자유치를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당시 호조세를 보이던 세계 경제 환경과 맞물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1년 미국의 9.11 테러와 닷컴 버블 붕괴 등의 영향으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액은 2000년을 정점으로 2003년까지 감소세를 보였다. 2003년 정부가 외국인직접투자 종합계획을 발표한 이후 외국인직접투자가 2004년 다시 반등하였고 2008년까지 5년 연속 투자유치 금액이 100억 불 이상을 기록하는 등 회복세를 1998년부터 2008년까지의 외국인직접투자 누적액은 산업화가 시작된 1962년부터 1997년까지의 외국인직접투자 누적액의 5배로서 외국인직접투자액은 명실상부 한국 경제를 촉진하는 주요 축의 하나이다.

이와 같이 연간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110억불 수준에서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내용면에서 Greenfield형 투자비중이 2006년 61.7%까지 확대되었고, 2007년 76.4%, 2008년 62.2% 등 보다 내실 있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세계적 추세를 볼 때 앞으로는 M&A형 투자유치가 확대될 여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 M&A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12년 기준 업종별 투자 유치 현황은 [그림 3]과 같다.

한편, 2008년 출범한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강력하고 구체적인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해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등 투자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기조에 힘입어 투자유치가 확대되었고 그 결과 2008년, 4년 만에 증가세를 회복하였다. 투자금액과 함께 신고 건수로도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금융위기 발발로 인한 미국발 투자 감소분이 EU 및 일본으로부터의 투자 증가로 상쇄되었으며, 2009년 2월 4일 발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비한 투자, 그리고 기투자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충을 위한 증액 투자 등으로 금융 보험업종의 투자가 크게 확대되는 추세이며, 제조업 부문 또한 한국 산업의 발전 잠재력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세계 경기침체에 따라 불리한 투자여건 속에 있으나 M&A 시장 활성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발표 등 새로운 사업요인 등의 기회 요인 등을 잘 활용하고 미국 및 EU 등 주요 투자권과 더불어 중동, 화교 자본 등 금융위기 영향이 비교적 적은 투자권 대상 유치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여 어려운 시기를 머지않은 장래에 극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V. FDI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1. 추정 모형 및 변수 설명

1) 추정 모형

논문은 FDI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한중 비교분석을 하기 위해서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의 1980년부터 2012년까지의 데이터를 정리하고 이용하였으며, 연구 모형은 Arshad Hayat(2014) 모형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⁵⁾

$$\Delta \ln Y_t = \beta_0 + \beta_1 OPEN_t + \beta_2 FDI_t + \beta_3 INV_t + \beta_4 M_t + \beta_5 HK_t + \beta_6 INF_t + \beta_7 GC_t + \beta_8 POP_t + \epsilon_t$$

여기서, Y=일인당 실질GDP성장률, OPEN=수출입액/GDP, FDI=FDI/GDP, INV=민간투자/GDP, M=M2/GDP, HK=평균교육연수, GC=정부소비지출/GDP, INF=inflation rate, POP=인구증가율, ϵ =오차항 이다.

2) 변수 설명

FDI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한중 비교분석을 하기 위해서 본 연구 중에 설정된 변수들은 일인당 실질GDP성장률(GDP), 해외직접투자 유입액/GDP(FDI), 인구증가율(POP), 무역규모/GDP(OPEN), 국내투자/GDP(INV), 정부소비지출/GDP(GC), 인플레이션율(INF), 통화공급/GDP(M) 및 중등학교등록율(HK)은 모두 실질 변수로 변화하기 위해 일인당 실질GDP성장률(GDP), 인구증가율(POP)과 인플레이션율(INF)의 세 변수는 연간 백분율의 비율로 사용하고 나머지 FDI, OPEN, INV, GC, M 및 HK 변수들은 GDP에 대한 비율로 취해서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모형 중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변수는 일인당 실질GDP성장률(GDPK)은 종속변수로 설정되었고 해외직접투자 유입액(FDIK), 인구증가율(POPK), 무역규모(OPENK), 국내투자(INVK), 정부소비지출(GCK), 인플레이션율(INFK), 통화공급(MK) 및 중등학교등록율(HKK)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기대되는 부호는 [표 2]와 같다. 중국 변수는 일인당 실질GDP성장률(GDPC)은 종속변수로 설정되었고 해외직접투자 유입액(FDIC), 인구증가율

5) 자세한 사항은 Arshad Hayat(2014)을 참조바람.

(POPC), 무역규모(OPENC), 국내투자(INVC), 정부소비지출(GCC), 인플레이션율(INFC), 통화공급(MC) 및 중등학교등록율(HKC)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그 기대되는 부호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2] 한국 변수 설명

변수	변수 설명	단위	기대효과
종속변수	일인당 실질GDP성장률(GDPK)	%	
독립변수	해외직접투자 유입액(FDIK)	%	+
독립변수	정부소비지출(GCK)	%	+
독립변수	중등학교등록율(HKK)	%	+
독립변수	인플레이션율(INFK)	%	-
독립변수	국내투자(INVK)	%	+
독립변수	통화공급(MK)	%	+
독립변수	무역규모(OPENK)	%	+
독립변수	인구증가율(POPK)	%	+

자료출처 : The World Bank 사이트: www.worldbank.org

[표 3] 중국 변수 설명

변수	변수 설명	단위	기대효과
종속변수	일인당 실질GDP성장률(GDPC)	%	
독립변수	해외직접투자 유입액(FDIC)	%	+
독립변수	정부소비지출(GCC)	%	+
독립변수	중등학교등록율(HKC)	%	+
독립변수	인플레이션율(INFC)	%	-
독립변수	국내투자(INVC)	%	+
독립변수	통화공급(MC)	%	+
독립변수	무역규모(OPENC)	%	+
독립변수	인구증가율(POPC)	%	+

자료출처 : The World Bank 사이트: www.worldbank.org

가설: 해외직접투자 유입액(FDI), 인구증가율(POP), 무역규모(OPEN), 국내투자(INV), 정부소비지출(GC), 통화공급(M) 및 중등학교등록율(HK)은 일인당 실질GDP성장률(GDP)에 대한 유의한 양(+)의 영향, 인플레이션율(INF)은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외국인직접투자는 기술이전 및 생산성 증대, 새로운 제품 및 경영기법의 도입, 고용자 교육과 국제생산 네트워크에 있어서의 노하우 등의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특히 기술 확산 등이 이루어질 경우, 외국인직접투자는 해당 국가경제를 근대화하고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해외직접투자 유입액(FDI)이 경제성장에 대해 정(+)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교육은 노동자의 자질개선을 향상시킬 수 있고 노동자의 효율성, 지식, 숙련도 등을 향상시키고 기술진보가 실현되어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인구 증가, 무역규모, 국내투자와 통화공급은 국민의 소비 수준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인구증가율(POP), 무역규모(OPEN), 국내투자(INV), 정부소비지출(GC), 인플레이션율(INF), 통화공급(M) 및 중등학교 등록율(HK)은 경제성장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다.

2. 실증분석

1) 단위근 검정

사용된 시계열자료들에 대한 안정성(Stationarity)을 살펴보기 위해 Augmented Dickey-Fuller test(ADF)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변수는 사용된 자료가 일인당 실질GDP성장률(GDP), 해외직접투자 유입액(FDI), 인플레이션율(INF) 세 변수들은 단위근(Unit Root)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였고 안정성을 나타냈다. 인구증가율(POP), 무역규모(OPEN), 국내투자(INV), 정부소비지출(GC), 통화공급(M) 및 중등학교등록율(HK)은 차분을 취할 때 안정성을 나타냈다.

[표 4] 한국 변수에 대한 단위근 검정결과(ADF)

변수 명	검정 방법	ADP	
		수준변수	차분변수
GDPK		0.0001***	-
FDIK1		0.0947*	-
GCK		1.9916	0.0001***
HKK		0.7208	0.0148**
INFK		0.0008***	-
INVK		0.7037	0.0414**
MK		0.6952	0.0034***
OPENK		0.8223	0.0007***
POPK1		0.0859*	-

주: 1) MacKinnon (1991)에 의한 ADF 임계치 1%: -4.32, 5%: -3.58, 10%: -3.29을 사용함, * 10%, ** 5%, ***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2) 1980년~2012년 자료임. 제시된 통계량은 상수항과 시간추세를 고려한 수침.

한국과 달리 중국의 결과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 변수는 사용된 자료가 일인당 실질GDP성장률(GDP), 무역규모(OPEN) 두 변수들은 단위근(Unit Root)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였고 안정성을 나타냈다. 인구증가율(POP), 해외직접투자 유입액(FDI), 인플레이션율(INF), 국내투자(INV), 정부소비지출(GC), 통화공급(M) 및 중등학교등록율(HK)은 차분을 취해서 안정성을 나타냈다.

<표 5> 중국 변수에 대한 단위근 검정결과(ADF)

변수 명	검정 방법	ADP	
		수준변수	차분변수
GDPC		0.0120**	-
FDIC		0.7752	0.0086***
GCC		0.2428	0.0427**
HKC		0.4933	0.7981*
INFC		0.2791	0.0005***
INVC		0.2133	0.0112**
MC		0.1128	0.0001***

OPENC	0.0632**	-
POPC	0.9997	0.0708**

주: 1) MacKinnon (1991)에 의한 ADF 임계치 1%: -4.32, 5%: -3.58, 10%: -3.29을 사용함, * 10%, ** 5%, ***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2) 1980년~2012년 자료임. 제시된 통계량은 상수항과 시간추세를 고려한 수침.

2) 상관관계 분석

한국에서 1980-2012년 연간 자료를 사용하여 한국 변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6]을 보면, 일인당 실질GDP성장률(GDPK)은 국내투자 D(INVK)와 0.41로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일인당 실질GDP성장률(GDPK)은 인플레이션율(INFK)과 0.22로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일인당 실질GDP성장률(GDPK)은 무역규모D(OPENC)와 0.06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 유입액(FDIK1)은 정부소비지출D(GCK)과 0.14로, 중등학교등록율D(HKK)과 0.11로, 통화공급 D(MK)과 0.27, 무역규모D(OPENC)와 0.87로 정(+)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다. 정부소비지출D(GCK)은 통화공급 D(MK)과 0.43로, 인구증가율(POPk1)과 0.21로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중등학교등록율D(HKK)은 무역규모D(OPENC)와 0.12로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국내투자D(INVK)는 인플레이션율(INFK)과 0.47로, 인구증가율(POPk1)과 0.73로 정(+)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다. 인플레이션율(INFK)은 무역규모D(OPENC)와 0.97로 상관관계를 볼 수 있다. 통화공급 D(MK)은 무역규모D(OPENC)와 0.77로 상관관계를 볼 수 있다.

[표 6] 한국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1980-2012)

변수명	GDPK	FDIK1	D(GCK)	D(HKK)	D(INVK)	INFK	D(MK)	D(OPENC)	POPk1
GDPK	1.00	-0.18	-0.73	-0.08	0.41	0.22	-0.29	0.06	-0.36
FDIK1	-0.18	1.00	0.14	0.11	-0.53	-0.32	0.27	0.87	-0.59
D(GCK)	-0.73	0.14	1.00	0.00	-0.49	-0.18	0.43	-0.44	0.21
D(HKK)	-0.08	0.11	0.00	1.00	-0.06	-0.16	-0.13	0.12	-0.66
D(INVK)	0.41	-0.53	-0.49	-0.06	1.00	0.47	-0.36	-0.35	0.73
INFK	0.22	-0.32	-0.18	-0.16	0.47	1.00	-0.20	0.97	-0.31
D(MK)	-0.29	0.27	0.43	-0.13	-0.36	-0.20	1.00	0.77	-0.78
D(OPENC)	0.06	0.87	-0.44	0.12	-0.35	0.97	0.77	1.00	-0.44
POPk1	-0.36	-0.59	0.21	-0.66	0.73	-0.31	-0.78	-0.44	1.00

중국에서 1980-2012년 연간 자료를 사용하여 중국 변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7]을 보면, 일인당 실질GDP성장률(GDPC)은 해외직접투자 유입액D(FDIC)과 1.00로, 중등학교등록율(HKC)과 0.12로, 인플레이션율D(INFC)과 0.49로, 국내투자D(INVC)와 0.27로, 무역규모(OPENC)와 0.30로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정부소비지출D(GCC)은 해외직접투자 유입액D(FDIC)과 0.07로, 통화공급 D(MC)과 0.32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해외직접투자 유입액D(FDIC)은 인플레이션율D(INFC)과 0.49로, 국내투자D(INVC)와 0.55로, 무역규모(OPENC)와 0.02로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다. 중등학교등록율(HKC)은 통화공급 D(MC)과 0.02로, 무역규모(OPENC)와 0.87로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다. 인플레이션율D(INFC)은 국내투자D(INVC)와 0.63로, 무

역규모(OPENC)와 0.08로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국내투자D(INVC)는 무역규모(OPENC)와 0.04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7] 중국 변수 상관관계 분석 (1980-2012)

변수명	FDIC	GCC	GDPC	HKC	INFC	INVC	MC	OPENC	POPC
FDIC	1.00	-0.10	0.39	0.63	0.31	0.70	0.68	0.70	-0.63
GCC	-0.10	1.00	0.01	-0.45	-0.15	-0.37	-0.33	-0.38	0.26
GDPC	0.39	0.01	1.00	0.13	0.39	0.35	0.17	0.33	-0.23
HKC	0.63	-0.45	0.13	1.00	-0.15	0.84	0.95	0.86	-0.95
INFC	0.31	-0.15	0.39	-0.15	1.00	0.10	-0.16	0.03	0.21
INVC	0.70	-0.37	0.35	0.84	0.10	1.00	0.87	0.99	-0.86
MC	0.68	-0.33	0.17	0.95	-0.16	0.87	1.00	0.88	-0.94
OPENC	0.70	-0.38	0.33	0.86	0.03	0.99	0.88	1.00	-0.88
POPC	-0.63	0.26	-0.23	-0.95	0.21	-0.86	-0.94	-0.88	1.00

상관관계 분석을 검토한 결과, 한국은 일인당 실질GDP성장률(GDPK)은 국내투자D(INVK), 인플레이션율(INFK)과 무역규모D(OPENC)와 아주 큰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일인당 실질GDP성장률(GDPC)은 해외직접투자 유입액D(FDIC), 인플레이션율 D(INFC), 국내투자율 D(INVC)와 무역규모(OPENC)와 큰 상관관계를 보였다.

3) 회귀 분석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연간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액(FDIK1), 인구증가율(POP1), 무역규모D(OPENC), 국내투자D(INVK), 정부소비지출D(GCK), 인플레이션율(INFK), 통화공급 D(MK) 및 중등학교등록율D(HKK)이 일인당 실질GDP성장률(GDPK)에 미친 영향을 살펴 본 바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외직접투자 유입액(FDIK1)이 일인당 실질GDP성장률(GDPK)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정부소비지출D(GCK)이 일인당 실질GDP성장률(GDPK)에 매우 유의한(1% 수준 하에서 유의함) 긍정적인(0.0000)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등학교등록율 D(HKK)이 일인당 실질GDP성장률(GDPK)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국내투자 D(INVK)가 일인당 실질GDP성장률(GDPK)에 매우 유의한(1% 수준 하에서 유의함) 긍정적인(0.0009)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플레이션율(INFK)이 일인당 실질GDP성장률(GDPK)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통화공급 D(MK)이 일인당 실질GDP성장률(GDPK)에 일인당 실질GDP성장률(GDPK)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무역규모 D(OPENC)가 일인당 실질GDP성장률(GDPK)에 매우 유의한(1% 수준 하에서 유의함) 긍정적인(0.0002)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구증가율(POP1)이 일인당 실질GDP성장률(GDPK)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국내투자D(INVK)의 1단위의 증가가 일인당 실질GDP성장률(GDPK)에 0.0009단위 상승에 기여하는 것을 보였다. 무역규모D(OPENC)의 1단위의 증가가 일인당 실질GDP성장률(GDPK)에 0.0002단위 상승에 기여하는 것을 보였다. 따라서 국내투자D(INVK)는 일인당 실질GDP성장률(GDPK)에 제일 크게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다음 무역개방도가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을 보였다. 그러나 FDI 유입은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결정계수(R²)가 0.852792이며 수정된 결정계수($\overline{R^2}$)가 0.789703로

높게 나왔으며, AR(1)으로 교정한 후 Durbin-Watson통계량이 1.763321로 2에 가깝게 나와서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8] 한국 변수 회귀분석 결과 (1980-2012)

독립변수 \ 종속변수	GDPK
상수항	0.0304**
FDIK1	0.9422
D(GCK)	0.0000***
D(HKK)	0.5455
D(INVK)	0.0009***
INFK	0.4739
D(MK)	0.7766
D(OPENK)	0.0002***
POPk1	0.2161
R^2/\overline{R}^2	0.852792/0.789703
DW	1.763321 AR(1)=0.59***
관측치	33

주: * 10%, ** 5%, *** 1% 수준에서 t-값이 유의함을 의미.

한편 중국의 경우,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연간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외직접투자 유입액D(FDIC), 인구증가율D(POPC), 무역규모(OPENC), 국내투자D(INVC), 정부소비지출D(GCC), 인플레이션율D(INFC), 통화공급 D(MC) 및 중등학교등록율(HKC)이 일인당 실질GDP성장률(GDPC)에 미친 영향은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외직접투자 유입액D(FDIC)이 일인당 실질GDP성장률(GDPC)에 매우 유의한(1% 수준 하에서 유의함) 긍정적인(0.0443)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소비지출D(GCC)이 일인당 실질GDP성장률(GDPC)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중등학교등록율D(HKC)이 일인당 실질GDP성장률(GDPC)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투자D(INVC)와 인플레이션율(INFC)이 일인당 실질GDP성장률(GDPC)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통화공급 D(MC), 무역규모(OPENC)와 인구증가율D(POPC) 일인당 실질GDP성장률(GDPC)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해외직접투자 유입액D(FDIC)의 1단위의 증가가 일인당 실질GDP성장률(GDPC)에 0.0443단위 상승에 기여하는 것을 보였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 유입액D(FDIC)은 일인당 실질GDP성장률(GDPK)에 제일 크게 기여하는 것을 보였다. 그리고 결정계수(R²)가 0.602941이며 수정된 결정계수(\overline{R}^2)가 0.432772로 높게 나왔으며, AR(1) 교정후 Durbin-Watson 통계량이 1.703818로 2에 가깝게 나와서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9] 중국 변수 회귀분석 결과 (1980-2012)

독립변수 \ 종속변수	GDPC
상수항	0.0014***
D(GCC)	0.1359
D(FDIC)	0.0443**

HKC	0.7231
D(INFC)	0.1164
D(INVC)	0.2459
D(MC)	0.6467
OPENC	0.3667
D(POPC)	0.8052
$R^2/\overline{R^2}$	0.602941/0.432772
DW	1.703818 AR(1)=0.44**
관측치	33

주: * 10%, ** 5%, *** 1% 수준에서 t-값이 유의함을 의미.

위에 [표 8]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에서 정부소비지출D(GCK), 국내투자D(INVK)와 무역규모D(OPENK)가 일인당 실질GDP성장률(GDPK)에 대한 매우 유의한 정(+)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정부소비지출, 국내투자와 무역규모가 높으면 높을수록 경제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한국은 계속 국내투자와 무역규모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는 한국과 달리 [표 9]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중국에서 해외직접투자 유입액D(FDIC)이 일인당 실질GDP성장률(GDPC)에 대한 매우 유의한 정(+)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해외직접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중국은 계속 해외직접투자 유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양국의 추정결과가 상이하여 이는 한국의 경우는 이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여 대외적인 개방화와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는 아직 개발도상국의 단계에 있어 선진국 FDI 유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는 해외직접투자 FDI유입은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중국의 경우는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이 일인당 실질GDP성장률(GDPK)에 크게 기여하는 것을 보이고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은 외국인직접투자와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1980-2012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서 FDI 유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그 실증분석 결과는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고 나온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는 국내투자, 무역규모 및 정부지출이 클수록 경제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부소비지출, 국내투자와 무역규모 셋 변수 중에서 국내투자가 경제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정책의 목표를 두는 것이 장기적인 성장에 유리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중국은 경제개혁개방 이후 매년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는데, 이러한 양적성장을 가능하게 한 요인은 해외직접투자 유입이 일인당 실질GDP성장률에 가장 크게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성장요인이 다양하게 평가되고 있는데, 그러므로 중국은 해외직접투자 유입을 증가하는데 정책의 목표를 두는 것이 장기적인 성장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결론은 한국은 해외직접투자 유입이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중국은 해외직접투자 유입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외직접투자 유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은 국가와 정부가 해외직접투자 유입의 역할을 중시하여 지속적으로 해외직접투자 유입을 증가시켜야 한다. 실증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해외직접투자 유입이 경제성장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해외직접투자 유입이 생산의 기술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가 지속적인 고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단체와 개인이 해외직접투자 유입을 다 중시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과 달리 한국은 정부가 국내투자와 무역규모의 역할을 중시하여야 한다. 실증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정부소비지출, 국내투자와 무역규모가 경제성장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정부는 소비지출을 더 추가하여 국내투자와 무역규모를 이끌어가야 한다.

둘째, 중국에서 경제발전의 지역불균형으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역 불균형 현상을 조정해야 한다.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불균형 현상이 너무 심하다. 그 이유는 중국의 경제 발전현황을 보면 동부지역, 중부지역, 서부지역의 높은 순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직접투자 중에 지방재정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외국인직접투자도 동부지역이 제일 높고 서부지역이 너무나 낮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현상을 조정하기 위해서 중국이 계속 중서부지역의 경제개발을 강화해야 한다. 해외직접투자 유입은 소득수준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역 간 소득의 불균등을 완화하는데 있어서도 외국인직접투자의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도 정부가 정부소비지출, 국내투자와 무역규모를 촉진할 때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에도 분산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해외직접투자 유입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중국과 한국 1980년-2012년 기간의 연간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중국과 한국의 장기적 시계열 자료에 대한 이용 가능성의 한계 등으로 다양한 분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추정된 결과는 신뢰도 면에서 한계가 조금 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은 해외직접투자 유입과 다른 주요 요소인 변수들은 선정했으나 해외직접투자 유입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보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중국 데이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 국내투자와 정부지출 등 창출 효과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성순(2014), “한국의 대 중국 제조업 직접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동북아경제연구』. Vol. 26 No. 2, pp. 32.
- 김성순·서미영(2010), “동북아지역의 지역연구 : 한국 Fashion 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 문제점과 개선방안 - Eland 성공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경제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Vol. 2010, pp.24.
- 고정식(2014),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특성별 투자 동기 검증”,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26권 1호, pp.197-231.
- 김종섭(2014), “중국의 FDI(Inward), 자본과 경제성장간의 관계 및 영향 연구”, 국제지역학회, 『국제지역연구』 18권 1호, pp.457-484.
- 김주현(2011), “최근 중국 수입 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11-15호(통권 제 485호).
- 김영국(2010), “韓國의 경제자유구역 現況과 支援制度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2010권, pp.1-16.
- 김혁황·이홍식(2012), “중국의 FDI 결정요인 분석 - Revisited-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24권 4호, pp.95-122.
- 남설봉·심승진(2007), “외국인직접투자가 중국 각 성/시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에 관한”, 국제지역학회, 『국제지역연구』 11권 3호, pp.484-508.
- 이대희·김성순(2011), “중국기업의 對한국 FDI 진입전략 및 성과인식에 관한 연구”, 『경영사학』, Vol. 60, pp.22.
- 이용권(2014),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모형설정 관한 실증 연구, 중국&아세안 6개국 중심: 2007년-2012년 중심”,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16권 2호, pp.251-278.
- 장진자·강다연·전영서(2014), “한국의 대중국 FDI와 수출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제조업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38권 2호, pp.79-115.
- 조정환·김대중(2011), “해외 자본 유입과 GDP 간 인과관계 분석: 인도를 중심으로”, 『금융지식연구』 9권 3호 pp. 29.
- 장병윤(2011), “해외직접 투자와 경제성장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카자흐스탄 사례연구”, 『한국시물레이션학회논문지』 21권1호. pp.19-26.
- 최동권·이중철(2014), “중국의 對한국 직접투자와 고용효과”, 韓國東北亞 經濟學會, 『東北亞經濟研究』 第26卷 第2號, pp.27~53.
- 최정석·김형근(2014), “다국적기업의 대중국 투자의 추세연구”, 한중사회과학학회, 『한중사회과학연구』 32권, pp.199-222.
- 최백렬(2004), “중국의 대 ASEAN 투자 입지결정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 경제저널』 제2권 제2호,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PP.81-101.
- 한재현(2014), “중국의 수출입 구조 변화의 특징 및 향후 전망”, 『국제경제리뷰』 제2014-16호, 한국은행.

- 하태형(2014),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특징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14-36호(통권 587호).
- Arshad Hayat(2014), “FDI and Economic Growth: The Role of Natural Resources,” MPRA paper no. 57021, July.
- Borensztein et al(1998), “FDI, Education, and Economic Growth: Quality Matter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45, pp. 115 - 135.
- Borensztein, Creorio, and Lee (1995), “Public Governance, Health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ub-Saharan Africa,” Journal of African Economies, vol 18 no 4, pp.667-709.
- MacDougall (1960), “The Benefits and Costs of Private Investment from abroad: a Theoretical Approach”, Economic Record, vol. 27, pp. 13-15.
- Grossman and Helpman(1991), Innovation and Growth in the Global Economy, MIT Press, Cambridge.
- 花俊, 顧朝林, 庄林德(2001), “外資對我國地域經濟成長的影響”, 『經濟地理』 21(6), pp. 696-699.
- 魏后凱(2002), “外商直接投資對中國區域經濟增長的影響”, 『經濟研究』, pp.19-26.
- 鐘昌標(2000), “外資與地域經濟成長關係的理論與實證”, 『數量經濟 技術經濟 研究』, pp.31-32.

Comparative Analysis of the Impact of Inflow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the Economic Development in South Korea and China

Kim, Seong Suhn⁶⁾, Zhu, Xuecong⁷⁾

Abstract

In the paper, we explored links between inflow of FDI and economic growth, using panel data for a sample of Korea and China for the period 1980–2012 by examining that FDI inflow accelerates economic growth of the host country.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nflow in the economic growth of receiving countries has been studied extensively. While the impact of FDI inflow on economic growth of the host country is still being debated, majority of studies conclude a positive impact of FDI inflow on the domestic economic growth. The size and sign of the impact of FDI on economic growth varies greatly due to changes in different control variables. Countries with developed financial markets, greater absorptive capacity and maintaining trade openness tend to benefit more from the inflow FDI.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in this paper, the effects of domestic investment, trade openness and government spending on economic growth seem to be positively high in Korea but the effect of inward FDI on economic growth seems to be very effective in China. The paper concludes that the FDI inflow accelerates economic growth in China but not in Korea.

Key Words: FDI, Economic Growth, Korea, China, Regression Analysis

6) First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Dankook University, E-mail: sskim@dankook.ac.kr

7) Corresponding Author, Master of International Trade, Dankook University, E-mail: xczhu@daum.net.